논 고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양 현 봉 **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Ⅱ. 여성 지식기술창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분석

Ⅳ. 결론 : 시사점 및 한계

* 접수일(2014년 11월 11일), 최종수정일(2014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2014년 12월 5일)

** E-mail : 양현봉(hbyang@kiet.re.kr)

*** 본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신용보증기금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논문초록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양 현 봉

본 연구는 지식·기술 집약형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창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 지식기술 창업활동의 실태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4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대부분의 창업자가 기업에서 배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은 학교교육과정 등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으며, 창업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로 나타났다.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 지식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교육 강화, 여성창업자금 확충, 창업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활성화 방안

경제학 문헌분류 M41, O32

Abstract

Promoting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Female Entrepreneurship in Korea

Hyun-bong Ya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female entrepreneurship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ories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compani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female entrepreneurship, a survey of 400 start-ups in the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was conducted. The age at which a female entrepreneur starts a business was shown to increase with time, and the majority of the female entrepreneurs came from existing companies.

Many female entrepreneurs had not received enough training o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in universities or progra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biggest obstacle faced by the female entrepreneurs after launching their businesses turned out to be capital-raising. The start-up companies in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showed higher growth rates in terms of employment and sales, compared to tho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r the promo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female entrepreneurship, it is necessary to enhance femal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crease the funds for supporting female entrepreneurship, and improve utilization of the femal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Keywords Female,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Current status, Promotion

JEL Classification M41, O32

I. 서 론

미감유창(美感柔創)으로 표현되는 21세기 수요패턴 변화에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 등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경제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은 남성 중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력 저하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여성창업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설법인 수 중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7%(1만 3,098개)에서 2013년 22.9%(1만 7,272개)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의향률[1]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도 한국 여성의 기업가 자질 비율은 19.8%로 멕시코(51.2%), 미국(43.3%), 영국(34.0%), 일본(32.6%), 그리스(25.2%)와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12)

특히 지식과 기술집약형 기업이라고 부르는 벤처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200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2년말 현재 2,169개사로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중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여성창업자 중에서 이공계열 전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세기 미감유창으로 집약되는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 남성 중심의 창업에서 여성의 미적·감성적 특성을 살린 기술지식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창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가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식기술 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되고 여성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창업가,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성의 지식기술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1)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전체 응답여성 중 창업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대두되는 창조경제시대에 여성 지식기술창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이 아닌 지식기술 집약형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남성과 비교한 여성 창업환경, 창업활동에 따른 애로요인,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성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여성의 지식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여성 지식기술창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선 여성창업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여성창업은 그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 미래의 이윤을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목표를 세우며, 적절한 시기에 인원, 자본, 원자재, 설비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안상철, 2011).

'지식기술 창업'이란 용어는 혁신기술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칭하는 데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기술창업'이 혁신기술 분야의 창업을 말하는 데, 기술분야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의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려는 정책적 의지에서 '지식기술 창업'이란 용어가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지식기술 창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갖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여성의 지식기술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성의 일반창업 활동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성의 지식기술 창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여성창업의 특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정유정, 1997; 김영옥, 1998; 문숙재 · 최자경, 2001; 전방지, 1997)에서는 주된 애로요인으로 직장생활에서의 한계, 구직난, 직장과 육아 · 가사의 병행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특성은 우리나라 여성창업이 내재적(pull) 요인보다는 외재적(push) 요인 즉, 소득이나 가족의 생계 등의 이유로 창업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유정(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창업가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교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자로서 대부분이 직장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직장생활의 경험과 창업 분야 간의 관련성 여부에서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4%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동기는 경제적 독립, 새로운 삶에 대한 추구, 자아실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창업가는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신용에 관한 책임감이 높으며 종업원과의 친근감 형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의 애로, 기술인력의 확보 불리,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지만, 창업활동에서는 남편이나 가족이 적극 협조해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양인숙 외(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은 일반 여성의 창업동기와 달리 남성 벤처창업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한정화 · 백윤정(2003)의 연구도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 벤처창업자는 직장에서의 제한된 승진기회나 불안정한 직장생활 등과 같은 부정적 창업 촉진요인(push factor)보다는 긍정적 창업 촉진요인(pull factor)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창업가의 특성과 관련하여 미국경영협회(AMA: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8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DOC, 1986, pp.9-12). 첫째, 지원해 주는 가족들 가까이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둘째, 관리직 또는 전문직에 있으면서 남편의 지원을 받는다. 셋째로는 일찍부터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고학력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어려운 업무의 해결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자신의 기업에 매우 헌신적이다. 여섯째,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면을 변화시키고 종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과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편, 미국의 여성창업은 198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초기의 전통적 여성창업은 서비스 업종의 소규모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양인숙 외, 2004). 전통적 여성창업가들은 대학에서 기술이나 경영보다는 인문 분야를 주로 전공하였기에 창업 이후 재무, 마케팅 등의 경영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열악한 자금 사정의 문제가 나타났다.

Smith and Miner(1984)의 연구는 사회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여성기업가들은 남성에 비하여 기회추구형 보다 장인형 기업가가 더욱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Kalleberg and Leicht(1991)는 878명의 남성기업가와 261명의 여성기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감과 통제 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관리전략 면에서 남성은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지만 여성은 품질을 강조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CTAD(2010)의 혁신과 여성창업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과학, 기술, 엔니지어링, 수학(STEM)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지분 투자를 받을 가능성은 여성보다 남성창업가의 비중이 높다. 셋째, 마이크로 파이낸스(소규모자금) 기관 및 제도는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EU(2008)가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부문의 여성혁신가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정책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유형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맥락적 장애요인'으로서 교육관련 선택의 제한, 고용과 관련된 수평적(직무의 종류) 및 수직적(승진 관련) 제한 등은 과학기술 분야 및 기술 창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여성 관련 발명 및 혁신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 결과, 여성혁신가 또는 창업가는 고객, 파트너, 공급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힘들게 된다. 아울러,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시각으로 인해 가사 업무와 현대사회에서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장애요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여성은 자금조달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여성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경영과 관련하여 신뢰를 받기 어렵다.

세 번째 유형은 '소프트웨어 측면 장애요인'으로서 여성창업가는 과학기술 분야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 고객 확보,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관련 시장에 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공부는 많이 한 반면에 비즈니스(창업) 교육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는 남성 중심의 분야라는 인식과 기술사업화의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신감, 확신감, 도전정신이 남성에 비해 작은 여성은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아울러, 롤 모델(role model)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여성 창업 관련 연구에서는 여성창업의 특성으로 고학력 수준, 직장경험 보유, 경제적 독립성, 신용에 대한 높은 책임감 등을 갖고 있으나, 열악한 자금사정, 사회적 인식 부족, 네트워크 활용 애로, 창업교육 및 롤 모델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선행연구는 대부분 여성 일반창업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음에 비해, 미감유창이라는 21세기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식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창업의 특성 및 창업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일반창업이 아닌 여성의 지식기술 창업에서 나타나는 애로요인,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성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그에 따른 특성 도출과 함께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차이점을 두고 있다.

Ⅲ.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본 연구의 근거자료가 되는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실태조사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동 조사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여성 지식·기술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모집단은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원사(703개사),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중 여성기업(565개사) 및 2013년 6월말 현재 여성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2,282개)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된 업체를 제외한 3,212개사였다. 이는 본 연구가 여성 창업활동을 지식·기술집약적인 기업(기업가) 측면에서 조사·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조사서를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대상 3,212개 여성 창업기업에게 팩스 및 e-mail로 송부한 뒤, 여성 창업자(대표이사)와 조사내용을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나누어 여성 창업자 및 회사의 일반현황,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과 비교한 여성 창업환경, 여성창업 지원제도 및 성공요인의 5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수는 조사대상 모집단(3,212개사)의 12.5% 수준인 400개사였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기업 23.2%, 2006~2009년 창업기업 31.8%, 2010년 이후 창업기업 45.0%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분야별로는 제조업 부문이 75.2%,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4.8%로 구성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이상이 16.8%, 대학 졸업 42.0%, 전문대 졸업 13.5%,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7%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식기술 창업활동 실태파악을 위해 분산분석(F 통계량)과 교차분석($\chi 2$ 통계량)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여성 창업기업의 실태 분석

2.1. 창업자의 일반적 특성

우선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창업한 창업자일수록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연령 및 창업 당시 연령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창업자가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연령은 평균 39.1세로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 그 연령이 평균 37.3세로 나타났음에 비해, 2006~2009년 창업자는 평균 38.8세, 2010년 이후 창업자는 평균 40.2세로 나타나는 등 최근 창업한 여성창업자일수록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연령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p<0.05$).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평균 40.6세로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 그 연령이 평균 38.9세로 나타났음에 비해, 2006~2009년 창업자는 평균 40.4세, 2010년 이후 창업자는 평균 41.5세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 창업한 창업자일수록 그 연령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p<0.05$).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창업의 기회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창업자의 창업 결정 및 창업 당시 연령 추이로 볼 때 기업가정신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현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1 〉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연령 및 창업 당시 연령 (단위 : 연령(세))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평균 연령		창업 당시 평균 연령	
			F		F
전 체		39.1		40.6	
창업연도	2006년 이전	37.3	4.061**	38.9	3.563**
	2006~2009년	38.8		40.3	
	2010년 이후	40.2		41.5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 $p < 0.05$

조사대상 여성창업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졸업(42.0%) 및 대학원 이상(16.8%)이라는 응답 비율이 58.8%로 나타났음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전문대 졸업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27.8%, 13.5%로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비중이 24.7%였음에 비해, 2006~2009년 창업자는 그 비율이 46.5%로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창업한 창업자의 비율은 47.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 여성 창업자의 비율은 2006년 이전 20.5%에서 2006~2009년에는 17.3%, 2010년 이후에는 14.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최근 창업한 여성 창업자 중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여성창업자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이후 기술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표 2 〉 여성 창업자의 최종 학력 (단위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합 계	X^2
전 체		27.8	13.5	42.0	16.8	100.0	
창업연도	2006년 이전	38.7	16.1	24.7	20.0	100.0	16.638**
	2006~2009년	22.0	14.2	46.5	17.3	100.0	
	2010년 이후	26.1	11.6	47.8	14.5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 $p < 0.05$

창업자의 창업 이전 직장은 기업체에서 임원 등 관리자 또는 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는 응답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18.9%), 가정주부(17.0%), 연구기관 및 대학근무 5.0%, 대학(원) 학생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창업자도 남성창업자와 같이 대부분 기업에서 배태(胚胎)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창업활동에 미친 영향요인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동기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창업하는 여성창업자들은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창업하고자 하였던 동기를 묻는 설문에 대해 자아실현(31.4%), 사회공헌(12.7%), 사회에서 리더십 발휘(12.3%), 직장생활에서 구속없는 독립성과 자유로운 활동(12.1%)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더 많은 수입 25.3%, 생업 위해 3.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여성창업자에게서 비경제적 동기가 경제적 동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p<0.01$).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고학력화 및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독립적이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 〉 여성 창업자의 창업 동기 (단위 : %)

		자아실현	리더십 발휘	독립성, 자유	사회공헌	많은수입	생업위해	기 타	합 계	X^2
전 체		31.4	12.3	12.1	12.7	25.3	3.3	2.9	100.0	
대표자 학력	고졸 이하	22.1	11.0	11.6	10.4	35.7	4.0	5.2	100.0	40.538***
	전문대졸	30.5	7.4	14.6	12.9	26.1	4.7	3.8	100.0	
	대 졸	34.2	14.0	9.7	12.5	25.2	2.1	2.3	100.0	
	대학원졸	41.0	14.1	16.6	16.6	7.4	4.3	0.0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 $p < 0.01$

여성 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전 직장 경험이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직업교육(6.5%), 가정교육(5.0%), 학교교육(3.8%)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는 33.3%로 조사되었다. 남성 창업자의 경우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크게 미친 영향요인은 '이전 직장 경험' 이었다는 응답이 81.6%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남성 창업자가 여성 창업자에 비해 기업에서 배태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양현봉 외, 2009).

이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남성 창업과 같이 기업으로부터 배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창업 이전 직장 경험'이 창업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직업교육이나 학교교육 등의 교육시스템은 여성 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학 등에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학교교육이 여성의 창업 촉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와 같이 창업촉진을 위해 학교교육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4 〉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단위 : %)

	이전 직장 경험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직업 교육	기 타	합 계
전 체	53.0	1.7	39.2	0.5	1.3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초기 자금조달에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여성 지식기술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에 창업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개인자금'이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공공기관 융자 및 보증'(25.7%), 은행자금(14.0%), 친척 및 친구 자금(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자금의 비중은 전체의 2.0% 수준으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전체적으로 개인자금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창업한 여성 창업자일수록 은행자금 의존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공공기관의 융자나 보증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p<0.01$).

이는 우리나라 여성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의 필요자금은 일정 부분 축적해놓은 개인자금에 주로 의존하고, 창업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일반은행자금보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금에 의존한 반면,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자금의 활용은 낮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5 〉 창업 초기 창업자금 조달처 (단위 : %)

		개인자금	공공기관 융자/보증	은행대출	친척/친구 자금	VC/엔젤 자금	기 타	합 계	X^2
전 체		51.7	25.7	14.0	5.8	2.0	0.8	100.0	
창업연도	~2009년 까지	57.7	18.6	15.9	6.8	0.5	0.5	100.0	21.633***
	2010년 이후	44.4	34.4	11.7	4.4	3.9	1.1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 $p < 0.01$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창업 초기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간별로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기간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창업 후 1~3년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6.5%, 6개월~1년 미만이 27.8%, 3~5년 미만이 17.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창업기업의 자금사정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창업 6개월~3년 정도에 이르는 창업 초기단계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 표 6 〉 창업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시기 (단위 : %)

	창업~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5년 미만	없었음	합 계
전 체	11.0	27.8	36.5	17.8	7.0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2.3. 남성과 비교한 여성창업 환경

최근 들어 창업환경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남성 창업에 비해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5.7%로 나타났음에 비해, 비슷하다는 응답은 42.0%, 유리하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하였다(<표 7 참조).

창업연도별로는 최근에 창업한 여성 창업기업일수록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분야별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리하다는 응답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p<0.05$).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향후 여성 지식기술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여성 창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창업에 비해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불리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남성 중심의 기업활동 및 접대 문화'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 창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31.3%), 기업활동 네트워크 부족(17.0%), 육아/가사부담 문화(8.8%)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사업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남성 중심의 기업활동 및 접대 문화'라는 응답이 45.4%,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그 비율이 36.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p<0.1$).

이 같은 설문결과는 아직도 남성 중심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여성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7 〉 남성 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 (단위 : %)

		매우불리	불리한편	비 슷	유리한편	매우유리	합 계	F
전 체		6.5	39.2	42.0	11.5	0.8	100.0	
창업연도	2006년 이전	6.5	37.6	38.7	17.2	0.0	100.0	0.856#
	2006~2009년	5.5	38.6	43.3	11.0	1.6	100.0	
	2010년 이후	7.2	40.5	42.8	8.9	0.6	100.0	
사업분야	제조업	5.6	37.9	42.2	13.3	1.0	100.0	5.483**
	지식기반 서비스업	9.1	43.4	41.4	6.1	0.0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 p > 0.1, ** < 0.05

〈 표 8 〉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창업환경이 불리한 이유 (단위 : %)

		육아/가사 분단 문화	낮은 사회적 인식	기업활동 네트워크 부족	남성중심 기업 활동/접대문화	기 타	합 계	X^2
전 체		8.8	31.3	17.0	42.9	0.0	100.0	
사업분야	제조업	5.4	33.0	16.2	45.4	0.0	100.0	7.34*
	지식기반 서비스업	17.3	26.9	19.2	36.6	0.0	100.0	

유효응답 수 : 182개
주 : * p < 0.1

여성창업이 남성창업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내실을 기하며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이라는 응답이 26.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특유의 미감 유창을 반영한 창업 가능'이라는 응답이 21.7%, '여성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감 및 정직성'이라는 응답이 19.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내실을 도모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미감유창의 특성을 살린 창업이 가능하며, 남성창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감과 정직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표 9 〉 남성창업과 비교한 여성창업의 장점 (단위 : %)

	미감 유창 특성 반영 창업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정직성	사후관리 통환 고객만족도 제고	내실 도모하여 안정적 성장	정부 여성창업 지원 정책	기 타	합 계
전 체	21.7	19.8	11.5	26.7	16.3	4.0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2.4. 창업활동에 따른 애로요인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 이후 기업활동 과정에서 가사/육아/사업병행뿐만 아니라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 등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44.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19.5%), 마케팅·영업/판로개척(17.9%), 가사/육아/사업병행(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자금조달의 경우 2006년 이전 창업기업에 비해 2006년 이후 창업한 기업에서 애로사항이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우수인력 확보/유지의 경우는 2006년 이전 창업기업에 비해 최근 창업한 기업일수록 애로사항이었다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는 자금조달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문별로는 제조업 영위기업에서 자금조달이 애로사항이었다는 응답비율이 47.4%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3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영위기업에서는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기업의 경우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에 상대적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향후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원활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인력확보 및 유지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 표 10 〉 창업과정 및 창업 이후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

		가사/육아/사업 병행	자금 조달	우수 인력 확보/유지	기술 수준 확보	마케팅·영업/환경 등 규제 판로 개척	환경 등 규제	기 타	합 계	x2
전 체		10.0	44.8	19.5	5.7	17.9	1.6	0.5	100.0	
창업연도	2006년 이전	12.4	46.8	15.6	8.0	15.9	1.1	0.2	100.0	9.007#
	2006~2009년	9.1	46.6	18.1	5.0	19.5	1.7	0.0	100.0	
	2010년 이후	9.3	42.7	22.6	5.0	17.7	1.7	1.0	100.0	
사업분야	제조업	9.6	47.4	17.2	5.4	18.6	1.4	0.4	100.0	9.409#
	지식기반 서비스업	11.1	37.0	27.2	6.5	15.5	1.9	0.8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 p > 0.1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도 남성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

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 및 기업운영 자금조달 과정에서 가장 크게 겪었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담보부족'이라는 응답이 46.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의 지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16.2%), '대출자격조건 미달'(15.7%), 신용부족(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자금 조달시 담보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며,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커 이를 해소하는 신용보증 지원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여성의 지식기술에 대해서도 선입견 없는 가치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 표 11 〉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

	담보부족	신용부족	여성 지식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	대출자격 조건 미달	기 타	합 계
전 체	46.0	9.8	16.2	15.7	12.3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술인력 확보 곤란(34.0%), 기술개발 사업화 역량 부족(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여성창업자에 비해 최근에 창업한 창업자일수록 '기술개발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기술인력 확보 곤란'의 경우는 최근에 창업한 기업일수록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로서는 기술인력 확보에 앞서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자금 공급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표 12 〉 기술개발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

		기술개발자금 부족	기술인력확보 곤란	개발기술 사업화 역량 부족	기 타	합 계	X^2
전 체		41.7	34.0	15.8	8.5	100.0	
창업연도	2006년 이전	33.3	37.7	20.4	8.6	100.0	4.98#
	2006~2009년	44.1	33.1	15.7	7.1	100.0	
	2010년 이후	44.4	32.9	13.3	9.4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 p > 0.1

창업기업은 자금, 기술개발만이 아닌 인력확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이 인력확보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관련 분야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이미지'(27.8%), 잦은 이직(2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의 속성상'전문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창업·중소기업이라는 이미지'및'잦은 이직'도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 표 13 〉 인력확보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

	창업기업이란 이미지	전문인력 충원	작은 이직	여성CEO 기피	기 타	합 계
전 체	27.8	43.4	21.5	1.5	5.8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의 판로개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거 납품/생산실적 요구 등 시장참여 조건 충족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케팅·영업력·브랜드 능력 취약(35.0%), 남성중심 접대문화(12.0%), 수요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생산 어려움(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창업자가 판로개척 과정에서 남성 창업자와 동일하게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 납품/생산실적 요구 등 시장참여 조건 충족의 어려움은 창조경제시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표 14 〉 판로확보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

	과거 납품/ 생산실적 요구	마케팅/브랜드 능력 취약	수요자 맞춤형 생산 어려움	남성 중심 접대 문화	기 타	합 계
전 체	38.2	35.0	8.5	12.0	6.3	100.0

유효응답 수 : 400개

2.5.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정부는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교육, 창업자금,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지식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효과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3.20점, 활용도는 2.61점, 효과는 3.17점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창업기업들의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효과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기업에 비해 2006~2009년, 2010년 이후 창업기업일수록 정부 창업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활용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창업지원제도의 효과 또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창업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이면 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용에 따른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 표 15 〉 창업지원제도의 인지도 · 활용도 · 효과 (단위 : 점)

		인지도		활용도		효과	
			F		F		F
전 체		3.20		2.61		3.17	
창업연도	2006년 이전	3.16	0.073#	2.41	2.317*	3.12	0.873#
	2006~2009년	3.19		2.56		3.17	
	2010년 이후	3.22		2.75		3.20	

유효응답 수 : 400개

주 : 1) * p < 0.1, # p > 0.1

2) 평점은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즉, 1(전혀 알지못함, 활용못함, 효과 없음), 3(보통), 5(매우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활용함, 매우 효과 있음)

한편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업지원제도를 알지 못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복잡'(21.3%), '정부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같아'(12.9%),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제대로 홍보하고,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면 창업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 표 16 〉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한 이유 (단위 : %)

	창업지원제도 알지 못해	수혜대상 아니기 때문	정부지원제도 실효성이 낮을 것같아	활용절차/ 제출서류 복잡	기 타	합 계
전 체	48.5	11.4	12.9	21.3	5.9	100.0

유효응답 수 : 202개

2.6.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성과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매출액(생산)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창업 1년 후, 창업 후 5년의 고용창출 및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본 결과, 창업 1년 후에는 평균 6.73명, 창업 5년 후에는 평균 10.63명으로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분야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창업 1년 후 6.48명, 창업 5년 후 9.35명으로 연평균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창업 1년 후 7.51명, 창업 5년 후 15.36명으로 연평균 19.6% 증가하여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창업 1년 후에는 업체당 평균 7억 7,820만원, 창업 5년 후에는 업체당 평균 16억 7,410만원으로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업분야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창업 1년 후에 업체당 평균 8억 4,390만원, 창업 5년 후에는 업체당 평균 17억 430만원으로 연평균 19.2% 증가하였음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창업 1년 후 업체당 평균 5억 5,040만원, 창업 5년 후에는 업체당 평균 15억 4,980만원으로 연평균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고용 및 매출액 창출능력이 높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에 정책적 역량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2011)의 중소기업실태조사 자료에 따른 성별 인력구성을 살펴보

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남성이 73.9%, 여성이 2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성별 인력구성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비중이 63.8%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지식기술창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여성창업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여성의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기업 특히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17 〉 여성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고용창출) 추이 (단위 : 명, %)

		창업 1년 후	창업 5년 후	연평균 증가율
전 체		6.73	10.63	12.1
사업분야	제조업	6.48	9.35	9.6
	지식기반 서비스업	7.51	15.36	19.6

유효응답 수 : 창업 1년 후(395개), 창업 5년 후(169개)

〈 표 18 〉 여성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창업 1년 후	창업 5년 후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78.2	1,674.1	21.1
사업분야	제조업	843.9	1,704.3	19.2
	지식기반 서비스업	550.4	1,549.8	29.5

유효응답 수 : 창업 1년 후(353개), 창업 5년 후(138개)

Ⅳ. 결론 : 시사점 및 한계

1. 여성 지식기술 창업의 특성 및 기존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의 제Ⅲ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동기에서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이전 직장경험을 바탕으로 기회추구형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이며, 창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성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이 더 불리하며, 창업의 성과(매출·고용 증대)는 기술창업보다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19 〉 여성 지식기술 창업의 특성 및 기존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지식기술 창업)	기존 연구(일반창업)
주된 창업 동기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 요인	소득 추구 등 경제적 요인
주요 학력 수준	고등학교 이상 고학력	고등학교 이상 고학력
창업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 미치는 요인	이전 직장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직장경험 있으나, 창업 업종과 무관하게 창업
창업 유형	기회추구형 창업	장인형 창업
창업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창업교육 정도	창업교육 부족	창업교육 부족
남성과 비교한 창업환경	남성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이 불리하나, 내실을 기하여 안정성장하고, 여성특유의 미감유창을 반영한 창업 가능	소비자 요구 파악을 잘하고, 신용에 대한 책임감이 높으며, 종업원과 친밀감이 남성보다 유리
창업의 성과 (매출, 고용 증대)	-	기술창업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에서 보다 높은 성과 시현

이같은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특성을 기존 연구(일반창업)와 비교해보면, 학력수준(고학력), 가장 큰 애로사항(자금조달), 창업교육 정도(부족)는 동일 또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동기 측면에서 일반창업은 소득추구 등 경제적 요인이 강조됨에 비해, 지식기술창업은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유형 측면에서 보면 일반창업의 경우 장인형, 지식기술 창업에서는 기회추구형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한 창업환경 측면에서는 일반창업의 경우 소비자 요구 파악·신용도·종업원과 친밀감 측면에서 남성보다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었음에 비해, 지식기술 창업은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하나 내실을 기하며 안정성장하고 여성 특유의 미감유창을 반영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성과(매출,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일반창업의 경우 비교 가능한 관련 선행연구를 차지 못하였으나, 지식기술 창업에서는 기술창업보다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에서 그 성과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 여성 지식기술 창업 활성화 방안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여성 창업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중(26.3%,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1년)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인력을 고용(36.2%, 본 연구, 2013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및 고령화 사회의 인력부족 현상 극복 등에 있어서도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제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지식기술 창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최근 창업한 여성기업가일수록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평균 연령이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 지식기술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연령 추이로만 볼 때 기업가정신 발현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의 지식기술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들의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전 직장 경험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직업교육, 학교교육이라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교육시스템이 여성들의 창업 마인드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여성 지식기술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강화하되, 창업 전반적인 내용 및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한 전문적이며 실전위주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여성 지식기술 창업자들이 기업활동 수행에 따른 애로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로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 후 6개월~3년 기간 동안에 창업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여성지식기술창업전용자금의 설정 및 신용보증 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성 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남성 중심의 기업활동 및 접대문화, 여성 창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나타났음을 감안하여, 여성 창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 지식기술 창업의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가율 성과에 있어 기술에 바탕을 둔 제조업보다 지식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설문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창업 5년 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19.6%(제조업 9.6%)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29.5%(제조업(19.2%)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지식기술 창업의 경우 제조

업 중심의 기술창업에 비해 여성의 장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여성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5점 척도의 조사에서 활용도는 2.61점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그 효과는 3.1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면 그에 따른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여성 지식기술 창업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범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남성 지식기술 창업과의 특성 비교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간접적인 비교도 여의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일반창업과의 특성 비교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 수행해온 선행연구와의 비교도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실태조사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분산분석(F 통계량)과 교차분석($\chi 2$ 통계량)을 활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외부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 그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한계점 및 문제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기업청(201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2. 문숙재·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Vol. 5, No. 1, 2001, 61-78.
3. 안상철(2011),「창업 여성CEO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양인숙·장미혜·김난주·이윤화(2004),「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30-18.
5. 양현봉(2012),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국회의원 손인춘·산업연구원, 국회정책토론회자료
6. 양현봉(2013),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e-KIET산업경제정보 제550호
7. 양현봉·조덕희·박종복(2009),「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 산업연구원
8. 전방지(1997), “기업조직과 여성 리더쉽”, 동덕여대 동덕여성연구, Vol. 2, 45-68.
9. 정유정(1997),「여성의 창업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중소기업연구원 (2007),「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 발전방안」.
11. 중소기업청(2012),「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2011.
12. 중소기업청(2012),「2011년 여성기업 백서」
13. 중소기업청(2013),「2012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
14.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2011),「2011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I」
15. 한정화·백윤정(2003),“여성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 25, No. 3, 329-355.
16. Cooper, A. C., G. E. Willard, and C. Y. Woo (1986), "Strategies of high performing new and small firms: A reexamination of the niche concep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 No. 3, 1986, 247-260.
17. EU(2008), Evaluation on policy: Promotion of Women Innovators and Entrepreneurship, Final Report, 25 July.
18.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0), Executive Report.
19. Kalleberg, A. L. and K. T. Leicht(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4, No. 1, 136-161.
20. Smith, N. R. and J. B. Miner(1984),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4, 325-340.
21. UNCTAD(2010), Innovation and Women' Entrepreneurship: An Exploration of Current Knowledge, Final Draft, May.